

“한해 톳·다시마·미역 600t 생산...지역 봉사에도 힘 보탬 것”



바다에서
희망 찾는 사람들

귀어 8년차 지명철(39)씨는 바다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완도 신지도가 고향인 지씨는 지난 2010년 귀어했다. 병환이 깊어진 부친을 대신해 양식업을 물려받기 위해서였다. 지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던 귀어에 마음을 굳혔다. 당시 결혼 3년차였던 지씨의 아내 기달라(37)씨도 지씨의 결단에 힘을 보탬다.

지씨는 바다에서 성공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바다에서 나고 자란 지씨는 잠수사 경력을 지니고 있다. 필리핀 세부에서 다이빙 체험 지도를 했던 지씨는 그곳에서 우연히 아내를 만나 사랑을 키워 화족을 맺었다.

이 국장은 완도군 신지면에서 한해 600t의 톳, 다시마, 미역을 양식하고 있다. 전체 양식장이 10ha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제법 크다.

채취부터 포장, 판매까지 모든 생산·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씨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를 활용해 소비자가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하

완도군 수산업경영인 신지면협의회장 지명철 씨

필리핀서 다이빙 지도 하다 부인 만나

귀어 8년만에 사업 성공 연매출 2억

‘365기동대’ 결성 해양쓰레기 치위

선행 베풀고 화합 공로 도지사 표창도

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의 상품은 연중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입소문이 났다. 최근 고객 맞춤형 선물세트까지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은 2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성공한 사업자가 됐지만 귀어 초기에 좌절할 뻔했다. 갑작스럽게 양식업을 물려받은 터라 시행착오가 많았다. 특히 종묘 선별에 애를 먹었다. 좋은 종묘를 쓰는 것은 양식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데, 지씨에게는 종묘를 고르는 안목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3년가량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지씨는 이제 중

요 선별에는 선수가 됐다. 비결은 ‘발품을 파는 것’이었다. 조바심내지 않고 경험을 쌓는 것에 집중했던 더 자연스럽게 종묘를 골라내는 기술이 생긴 것이다.

지씨는 “기술이 없으면 망하기 가장 쉬운 곳이 바다”라고 말했다. 물속에서 혼자 자라는 것 같은 해조류도 시기를 못 맞추면 썩고, 떨어져 나가 폐사가 일구기 때문이다.

귀어하고 이듬해 태어난 딸이 지씨에게 큰 힘이 됐다. 하지만 귀어 초기에 팍팍한 살림에 육아까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배 구입비와 한해 8000만 원에 달했던 종묘 값을 감당하기 버거웠다. 생활비를 벌 목적을 제주도까지 가서 민간 잠수사 일을 하기도 했다.

지씨는 3년간 실패를 거듭하다 동료 어민에게 종자를 심는 법부터 수확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배운 뒤에야 자리를 잡았다. 학구파인 지씨는 한국수산벤처대학 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지씨는 “정부나 지자체의 귀어인 교육이 있다고 해도, 세세한 바다 환경이나 어업 기술까지 모두 배울 수 있는 것은 아



잠수사 자격이 있는 지명철씨가 자연산 전복을 채취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니다”며 “수십 년 생업으로 바다에서 온갖 일을 겪으며 살아온 어민들에게 눈썰미로 배우는 비법, 경험에서 나온 기술을 배우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지씨는 지난해부터 2년 동안 완도군 수산업경영인 신지면 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역 어민 활동을 도왔다. 내년부터는 청년회 상임 부회장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올해로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지씨는 이제 지역 봉사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지씨와 뜻 맞는 청년 어민들은 ‘365 기동대’를 결성해 섬 곳곳의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을 살피는가 하면 협회 회원들과 심심일만으로 모은 성금을 꾸준히 기탁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지역에 선행을 베풀고 어민들과 화합을 이끈 공로로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지씨는 “인심 좋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귀어인의 삶에 더 없는 만족을 느끼고 있다”며 “이상이 기운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어민들이 애를 먹기도 하지만 공동체 정신으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일보 이종윤국장 대통령표창 받아

평화통일 공감 확대 활동 공로

광주일보 영광주재 이종윤국장(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사진)이 최근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 공감 확대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 국장은 본지 이달의 기자상(2002년)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언론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영광군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오는 동안에는 호남의정시민대상과 농협중앙회 회장상, 자랑스런 광주대인상(2007년)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국장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등 대·내외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사랑의 밥차·목포 하키협회, 공생재활원 찾아 따뜻한 식사 봉사

사단법인 사랑의 밥차(대표 배우 윤용현)와 목포시 하키협회(회장 김명원) 선수·임원진들은 지난 23일 목포공생재활원을 찾아 지역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했다.

이번 봉사는 광주시 봉산동에 위치한 HR아펠리스와 김명원 원장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봉사 당일 배우 윤용현이 직접 공생재활원을 찾아 장애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김명원 회장은 “우리 하키선수들과 임원진들이 직접 부대끼며 실천한 오늘의 작은 봉사가 미래의 지역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되길 바란다”며 “봉사라는 의미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진실어린 대화 속에서 서로 웃을 수 있고 행복을 나눌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과 목포시 하키팀 선수·임원진들은 분기별 1~2차례 지역복지시설들을



방문해 봉사를 하는 등 지역사회의 귀감을 사고 있다.

배우 윤용현은 “오랜만에 목포를 찾아 지역장애인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이번 사랑의 밥차 인연을 계기로 자주 만나고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사랑의 밥차는 한국 유명 연예인들

이 운영하고 참여하는 대표적인 나눔공동체로 1998년 4월 설립됐다. 현재 연예·의료·외식업계 분야 종사자 등 35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사랑의 밥차는 서울과 경기, 대전, 포항에 이어 다섯 번째로 광주·전남지역(지부장 안만수)에 문을 열었으며, 직접 발로 뛰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

전남신보재단 대통령표창

서민 부채 해결 기여 공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형천·사진)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2회 중소기업지원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전남신보는 서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시책보증이 호평을 받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과다 채무로 시달리는 서민들의 부채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일일방문수납대출 특별보증은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으로 영세사업자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여수 여양고, 어르신 초청 재능기부



여수 여양고(교장 이권현)가 최근 학교 강당에서 소라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초청, 사물놀이 등 재능기부활동을 펼쳤다. <여수 여양고 제공>

영덕정, 화순군수기 남녀 궁도대회 개최



화순 영덕정(사두 주영순)은 지난 23~25일 능주면 관영리 영덕정에서 제19회 화순군수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를 개최했다. <화순 영덕정 제공>

송의중,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



송의중학교(교장 김호중)는 최근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 공모에서 대상을 받았다. <송의중학교 제공>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산불예방 캠페인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민병준)는 최근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 일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동창회

▲학강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박정열 대동고이사장) 송년의 밤=26일(화) 오후 7시 광주 프라도호텔 연회장.

모임

▲2017광주배구인의 밤=27일(수) 오후 6시30분 광주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을 062-372-6218.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홀더’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

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관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속식보호 062-232-131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시 동구 준법로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양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안쪽 관리사무소월 062-512-5788, 062-262-154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푸른길통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각화문화의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

265-933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대상 아동=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언어발달평가, 언어발달교육(주 2회·1회 40분) 상담(무료)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여가운영 프로그램 수강생=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컴퓨터, 방송댄스, 요가 월~목 문의 062-951-9461.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장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회원=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謹 3가 故人の冥福을 빕니다 弔	
301호 故최영숙 님(여/93세) 子/子婦: 이동식/김미영, 동일/최경숙, 동상/박원정 女: 이영순 孫: 이기권, 신혜, 석훈, 서인 •발 인: 12월 26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2	401호 故권동심 님(여/88세) 子/子婦: 이문규/위복남, 영규/권경숙 女: 이영순 孫: 이기권, 신혜, 석훈, 서인 •발 인: 12월 26일 •장 지: 장흥 부산원 •연락처: 227-4383
101호 故양선자 님(여/65세) 子/子婦: 박경숙/이경미, 경현/최순희 女/婿: 박준자/최영길 •발 인: 12월 26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000	102호 故남현수 님(남/74세) 子/子婦: 남우철/고미라, 한철/김보남 女/婿: 남진희/이영식 •발 인: 12월 26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함께 한10년. 함께 할100년 금 호 장례식장 062-227-4000 대표이사 구 제길 www.mykumho.com	